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

Social and Cognitive Play Patterns in Terms of Young Children's Cognitive Styles

조 부 경*

Cho, Boo Kyung

장 선 화**

Jang, Sun 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ocial play, cognitive play, and social-cognitive play patterns as related to young children's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s.

Sixteen field independent and sixteen field dependent children were selected from a group of 79 young children with the use of 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PEFT). Their social play, cognitive play, and social-cognitive play patterns were observed.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by using SPSS/PC⁺;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1) difference of social play patterns as related to young children's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s was not found, (2) differences were found in cognitive play patterns as related to young children's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s, and (3) differences were found in social-cognitive play pattern as related to young children's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외부환경에 접근하고 적응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은 자기 특유의 방식으로 환경으로 부터 자극을 선택하고 지각하며 조직하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서울 경인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는데, 이와 같이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사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을 인지양식이라 한다(Witkin, et al., 1954). 즉 인지양식이란 정보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개인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개인의 일관성 있는 선호성을 말하며 또한 자극과 반응간의 매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개념으로서 개인이 환경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특징적인 방식(Goldstein & Blackman, 1987)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양식은 1950년대 이후 여러 차원에서 활발히 연구 되어졌으며, 그 중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되어진 차원은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이다(Saracho, 1983).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의 개념은 수직지각(perception of the upright)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 연구에서는 지각의 준거체계로서 신체 및 장(field)을 이용하는 경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분화 이론이 발표된 이후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의 개념이 보다 발전되었으며, 개인적 기능의 차원을 분화구조로 개념화하여 다양한 심리적 특성까지 설명하였다(Witkin, Goodenough & Oltman, 1979).

분화이론에 따르면 장독립성 인지양식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 즉, 장(field)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비교적 적게 받는 반면, 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Witkin et al., 1979)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는 장독립적인 사람은 주변의 장을 보다 분별된 방식으로 경험하고, 지각 대상을 분리해서 지각하지만, 장의존적인 사람은 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분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영역에 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개인의 지각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

라 사고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지적, 정서적, 동기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까지 설명하고 있다(Goodenough, 1976). 특히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양상에 대한 연구(Rubin & Nakamura, 1972; Ruble & Nakamura, 1972; Nakamura & Fink, 1980; Oltman, 1975; Pemberton, 1987; Saracho & Spodek, 1981; Saracho, 1985; 전숙자, 1983)에 의하면 장독립적인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며 사회적 자극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장의존적인 사람들은 대인 지각적 즉, 사회 지향적으로서 외부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회적 단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사회적 행동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놀이 또한 사회적 행동의 한 양상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인지양식과 놀이와의 관계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육자나 심리학자 및 연구자들은 유아의 놀이를 사회적 행동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유아의 놀이를 통해 사회적 상황을 직면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이형태가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Coates, Lord, & Jakabovics, 1975; Steele, 1981; Saracho & Spodek, 1981; 조은식, 1987; 천혜경, 1987)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장독립적인 유아들은 단독놀이를 많이하며,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사회적인 놀이를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인 경우 장독립적인 유아들은 조작영역 놀이를,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소꿉 및 블럭영역 놀이를 더 좋아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 장독립적인

유아들은 블록영역 놀이를,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소꿉영역 놀이를 더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관계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양식과 학문수행, 사회성, 창의성, 부모 양육태도 및 기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명순, 1983; 김미정, 1987; 김영주, 1983; 김용선, 1981; 안선희, 1988; 엄태식, 1986; 이경자, 1990; 이은혜, 조진형, 1984; 장혁표, 1980; 조진형, 1983; 황정혜, 1983)는 다소 있으나 인지양식과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는 조은식(1987)과 천혜경(1987)의 연구 정도에 국한됨으로서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적 놀이형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라 인지적 놀이형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인지양식 및 장독립성-장의존성

인간이 사물을 지각하는 방법에 개인차가 있고, 행동양식에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리학자들에게 알려져 온 사실이다. 개인은 각기 특유의 방법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데 이와 같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여

러 변인들 중의 하나로 도입된 개념이 인지양식이다.

인지양식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Witkin과 그의 동료들(1954)에 의하면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사물에 접근하는 독특한 양식을 총칭하여 인지양식이라 하였으며, 특히 개인이 외계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하는가 또는 전체적으로 접하는가의 차원에서 개인의 특성을 구분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지양식이란 인간이 사물이나 경험 혹은 다양한 상황 및 내적, 외적 세계에 반응할 때 서로 각기 다르게 특유한 방법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 및 조직화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하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구조화된 태도 및 사회적 행동양식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양식에는 여러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Witkin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을 들 수 있다. Witkin(1949)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인간의 지각과정에서 정보나 자극에 대한 심리적 분화(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이다(Pitts & Thompson, 1984). 이 개념은 Werner의 비교발달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에 의하면 발달적 초기 행동은 전체적이고 정교성이 부족하며 산만스러움으로 특징되는데 이러한 초기행동의 특징은 높은 단계로 발달할수록 기능이 분화되고 무정형의 전체를 부분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지각, 사고, 학습, 정서 및 언어활동을 포함한 모든 심리학적 영역의 발달 측면에서도 발견되어 진다고 하였다(Bloomberg, 1967). Witkin과 그의 동료들은 이 원리를 인지영역에 적용하여 장독립적인 사람은 장의존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화

(differentiation)를 할 수 있으리라 보았으며, 장 독립적인 사람은 내적인 관련성(internal referents)에 의존하는(Witkin, 1977) 반면, 장의존적인 사람은 외적인 관련성(external referents)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Goodenough & Witkin, 1977). 또한 장독립성-장의존성은 지각을 할 때 숨겨진 상황(embedded context)을 해결하는 능력, 즉 조직화된 전체에서 부분을 분리해 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석적-전체적(analytical-global) 차원이라고도 한다(Kagan, 1976). 따라서 장독립적 인지양식은 환경, 즉 장(field)을 지각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극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며 장의존적 인지양식은 지각한 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Roberge & Flexer, 1984).

2.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

1) 사회적 놀이형태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즉, 놀이를 통해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거나 싸우면서 다른 유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도덕적 기준이나 규칙, 성역할 등 수많은 사회적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아의 사회적 참여정도에 따라 놀이단계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Parten을 들 수 있다. Parten(1932)은 1-4세의 유아원 유아 42명을 대상으로 놀이형태를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개입과 의식의 특수화 정도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는 6가지 또래 놀이단계를 제시하였다(Rogers & Sawyers 1988). 즉, 다른 유아들이 노는 것을 지켜 보기는 하지만 그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고, 그 놀이 영역에서 있거나 주의를 땀도는 비참여 행동(unoccupied behaviors), 다른 유아들

이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유아들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보기 보다는 집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관자적 행동(onlooker), 혼자서 사물을 가지고 놀며, 때로는 다른 유아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말을 걸지만,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하거나 놀이를 변경하지는 않는 단독놀이(solitary independent play), 근처의 다른 유아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다른 유아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놀이, 또는 다른 유아와 함께 논다기 보다는 다른 유아의 옆에서 노는 병행놀이(parallel activity), 집단내의 모든 유아가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특별한 역할이 정해지지 않으며, 조직화된 목적이 없는 연합놀이(associative play), 조정된 역할이 있는 극을 하거나 형식적인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1-2명의 유력한 리더에 의해 역할이 정해지는 협동놀이(cooperative or organized supplementary play) 등이 있다. 단독놀이는 주로 2-2.5세에, 병행놀이는 2.5-3.5세에, 연합놀이는 3.5-4.5세에, 협력놀이는 4.5세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Parten의 놀이형태는 이후 많은 연구(Barnes, 1971; Rubin, Watson & Jambor, 1978)를 통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십년 동안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의 성숙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

2) 인지적 놀이형태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한편, 스스로 인지발달도 하게 된다. 즉, 여러가지 놀이감과 나뭇잎, 흙 등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나 질감, 크기, 색깔 등 물리적 지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논리, 수학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놀이의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놀이형태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Smilansky(1968)를 들 수 있다. 그녀는 Piaget (1962)의 놀이범주를 토대로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있는 게임으로 인지적 놀이형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기능놀이는 최초로 나타나는 놀이로 감각운동기의 주요 놀이형태이며, 구성놀이와 극놀이는 전조작 단계에 주로 나타나고, 규칙있는 게임은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놀이 형태이다. Smilansky는 이러한 놀이 단계에 있어 구성놀이를 기능놀이와 극놀이의 중간단계로 보았으며, 이러한 놀이 단계의 순서적 출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극놀이에서의 상징의 사용은 구성놀이 보다 더 진보된 지적 기술을 요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Christe, & Johnsen, 1987).

3) 사회-인지적 놀이형태

Parten의 사회적 놀이형태는 유아의 사회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으나 Barnes(1971)의 연구 이후 사회적 성숙의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단독놀이와 병행놀이의 상대적 가치문제 및 상호간의 사회적 성숙순서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Rubin, Watson, Jambor(1977)는 유아 놀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놀이에 있어 인지적 놀이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형태에 Smilansky(1968)의 인지적 놀이형태를 결합한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를 개발하였다. 즉, 사회적 놀이의 인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독-기능, 단독-구성, 단독-극놀이, 병행-기능, 병행-구성, 병행-극, 집단-기능, 집단-구성, 집단-극, 게임 등의 놀이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놀이형태를 사용한 연구를 보면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와 계층차, 연령간의 관계 및 사

회-인지적 놀이형태에 대한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와 시간 및 상황간의 안정성에 관해 검토한 것 등이 있다. 먼저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의 계층차를 알아본 연구로 Rubin, Maioni 및 Hornung (1976)은 중류계층 유아가 하류계층 유아보다 연합-구성놀이, 집단-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단독-기능놀이, 병행-기능놀이는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극놀이, 병행-극놀이, 집단-극놀이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선호도에 있어서는 중류계층 유아는 집단-구성놀이가 가장 높고, 병행-구성놀이, 병행-기능놀이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하류계층 유아는 병행-기능놀이, 병행-구성놀이, 단독-기능놀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류계층 유아는 병행놀이와 인지적 수준이 낮은 기능놀이를 선호하는 반면, 중류계층 유아는 집단놀이와 인지적 수준이 높은 구성놀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와 연령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Rubin, Watson 및 Jambor (1978)는 유아원 유아(4.5세)는 유치원 유아(5.4세)보다 단독-기능놀이, 병행-기능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병행-구성놀이, 집단-극놀이는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원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집단별 놀이형태에 있어서는 유아원 유아는 집단-구성놀이, 병행-구성놀이, 단독-구성놀이, 방관, 집단-극놀이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 유아는 병행-구성놀이, 집단-극놀이, 집단-구성놀이, 단독-구성놀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Rubin과 그의 동료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에 대한 발달적 본질을 인정하고 사회-인지적 놀이형태가 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놀이형태 연구에 있어 우수한 원안(Protocoi)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Hetherington, Cox 및 Cox(1979)도 4-6세에서 단독-구성놀이, 집

단-구성놀이는 계속 증가하나 병행놀이는 감소하고, 단독-극놀이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Pellegrini(1985)의 연구에서는 4-5세에서 구성놀이는 감소하나 병행-구성놀이, 집단-구성놀이는 차이가 없었다고 제시하였다. Rubin, Fein 그리고 Vandenberg(1983)은 단독-극놀이는 유아원 시기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모든 자유놀이의 1.5%로서 유아원 환경의 특성상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발달적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대한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와 시간 및 상황간의 안정성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 Rubin(1982)은 사회적 기술 측정과 사회-인지적 놀이형태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병행-구성놀이는 아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단독-구성놀이, 방관이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단독-기능놀이는 가장 낮은 질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기관의 특성상 병행-구성놀이를 격려하는 환경적인 배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nslin과 Fein(1981)은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대한 시간적·상황적 안정성에 관해 연구한 결과,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는 유아놀이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주고 심리 측정이론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안정성이 있는 도구인 동시에 유아 놀이의 사회적 형태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상 사회-인지적 놀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인지적 놀이는 유아의 사회적 놀이형태의 인지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인지적 수준이 높은 놀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지양식과 놀이형태와의 관계

최근 놀이와 지적 능력과의 관계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놀이와 인지양식 유형간의 관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aracho(1985)는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의 특징을 지적하였는데 장의존적인 유아가 병행, 연합, 협동놀이를 자주하는 반면, 장독립적인 유아는 단독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Steele(198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장의존적인 유아가 장독립적인 유아보다 사회적 놀이에 더 몰두했다는 것이다. 또한 Coates, Lord, Jakabovics(1975)도 자유놀이시간동안 4-5세 유아의 놀이형태와 인지양식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장의존적인 유아는 사회적 놀이를, 장독립적인 유아는 단독놀이를 선호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 장의존적인 유아는 소꿉영역에서, 장독립적인 여아는 적목영역에서 놀기를 좋아했으며, 남아의 경우는 장의존적인 경우 소꿉놀이영역과 적목놀이영역에서 사회적 놀이를, 장독립적인 남아는 조작놀이영역에서 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3-5세 유아 248명을 대상으로 한 Coates(197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장의존적인 여아 대부분은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반면, 장독립적 여아들은 소꿉놀이와는 다른 활동들을 좋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천혜경(1987)은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인지양식과 놀이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독립적인 유아는 단독놀이를 많이하며 장의존적인 유아는 집단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서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놀이 종류에 있어서도 장독립적인 유아는 조작놀이를 장의존적인 유아는 미술놀이와 적목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유아의 놀이형태

와 인지양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인 놀이는 장의존적인 인지양식과 관계가 있고 비사회적인 단독놀이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놀이형태와 인지양식은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장의존적인 여아의 경우 소꿉놀이를 좋아하며 장독립적인 여아의 경우는 조작놀이를 좋아하는 반면, 장독립적인 남아의 경우는 소꿉놀이와 블럭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장의존적인 유아는 사회지향적 놀이를 선호하며 장독립적인 유아는 비사회적이며, 목표지향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Saracho(1987)의 연구에서는 장독립 유아가 장의존 유아보다 더 사회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녀는 300명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놀이, 블럭놀이, 조작놀이, 극놀이의 4 영역에 대한 놀이빈도, 놀이능력, 창의성, 사회참여 및 놀이주도력과 유아의 인지양식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장독립 유아가 장의존 유아에 비해 집단놀이를 더 많이 하였고, 다양한 놀이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놀이빈도, 놀이능력, 놀이주도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의존 유아가 사회적 관심이 더 많다는 이전의 연구결과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대체로 장의존 유아는 장독립 유아에 비해 사회적 놀이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1개 병설 유치원의 원아 32명이다. 대상 선정을 위하여 흥

미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교구가 갖추어진 1개 유치원의 2개 학급 원아 77명에게 유아용 인지양식 검사(전윤식, 1984)를 실시한 후 기준점수의 백분위상 75% 이상의 유아를 장독립 집단으로, 25% 이하의 유아를 장의존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분포는 만 5.6세-6.7세이고, 평균연령은 만 6.0세이며, 이들 유아의 인지양식 및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인지양식별, 성별분포

인지양식	성		
	남	여	계
장독립	9(28.1)	7(21.8)	16(50)
장의존	8(25.0)	8(25.0)	16(50)
계	17(53.1)	15(46.8)	31(100)

2. 연구도구

1) 인지양식 검사

인지양식 검사는 Coates(1972)의 유아용 숨은도형 찾기검사(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를 전윤식(198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유아용 인지양식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3-5세 유아가 흥미를 느낄만한 다양한 그림속에서 단순한 세모꼴을 찾아내는 것으로 개인용 인지양식 검사도구이다. 검사문항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와 검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과제지와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3장의 연습문제, 그리고 24장의 본 검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유아와 검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기와 같은 동물(고양이)을 찾아내는 예비과제를 실시한 뒤 단순한 세모꼴을 찾아내는

연습문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연습문제는 3회에 걸쳐 시행하되, 3회 모두 틀린 답을 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검사자가 세모꼴을 직접 가리켜 줌으로써 유아가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다음, 연습용 검사를 완전히 이해하면 본 검사로 들어간다. 본 검사의 제한 시간은 30초 이내로 하고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문항 3까지는 유아가 틀린 반응을 했을 때 추가적 설명을 해 주되 문항 4부터는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일체하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반응은 옳은 반응, 틀린 반응, 중도 포기 및 시간초과의 네가지 유형으로 하되 채점은 30초 이내에 옳은 반응을 한 경우에만 1점을 주고, 나머지 세 유형의 반응에는 0점을 준다. 총점은 옳은 반응의 합으로서 인지양식 규준표에 의거하여 장독립 인지양식과 장의존 인지양식을 구분하는 준거로 사용한다(전윤식 1984).

2)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 관찰

인지양식에 따라 유아의 놀이형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ubin, Watson 및 Jambor(1978)의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 범주를 사용하였다. 이 범주는 사회적 놀이, 인지적 놀이,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놀이형태에는 단독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가 있으며, 인지적 놀이형태에는 기능놀이, 구성, 극놀이, 게임이 있다. 또한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는 단독-기능놀이, 단독-구성놀이, 단독-극놀이, 병행-기능놀이, 병행-구성놀이, 병행-극놀이,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극놀이, 게임놀이가 있다.

3. 연구절차

1) 인지양식 검사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아용 인지양식 검사의 대체적인 적용 가능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 참가한 유아는 5세아 10명(남아 5명, 여아 5명)으로 예비 검사 결과, 검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아 1명에 대한 검사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검사 점수를 토대로 1차 반응점수, 2차 반응점수 및 전체 점수간의 일관성 있는 반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5로 나타나 본 검사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내에 따로 설치된 조용한 방에서 실시 요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2)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 관찰

(1) 예비관찰 및 관찰자 훈련

본 관찰을 하기 전에 관찰방법의 적용 가능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에서는 본 관찰에 임할 2명의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관찰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 유아의 놀이형태를 10초간 관찰하고 2초간 기록하며 3초간 대상 유아를 찾는 방식으로 1주일간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찰자 훈련을 받은 2명의 관찰자와 본 연구자가 함께 40분동안 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형태를 관찰하여 Irwin과 Bushell(1980)의 공식에 의거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82로 나타나 본 연구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본 관찰본 관찰에서는 예비관찰 결과를 토대로 대상 유아를 10초간 관찰하고 2초간 기록하며, 3초간 대상 유아를 찾는 방식으로 실시하되

10초의 관찰중 최소 5초 이상 지속된 놀이형태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관찰자에게는 유아의 인지양식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관찰의 객관성을 기하였고, 관찰순서는 매일 방문시마다 목표 유아의 이름과 번호가 기입된 명찰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최초 목표 유아를 선정하여 그 유아를 시작으로 관찰한 후 다음 번호순서대로 관찰을 계속하여, 모든 유아의 관찰이 끝나면 처음 시작한 유아부터 다시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전체 관찰기간은 4주로 1주일에 6일간 24일이었으며, 하루 관찰시간은 전체 자유놀이 50분중 자유놀이가 시작후 5분과 끝나기전 5분을 뺀 40분이었다. 또한 각각의 유아에 대한 1일 관찰빈도는 10회며, 전체 4주간 1명의 유아에 대한 전체 관찰빈도는 240회였다. 그러나 전체 32명에 대한 24일간의 관찰횟수(7680회) 중 결석 등으로 인해 관찰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어 실제 총 관찰 횟수는 이보다 줄어들어 총 7434회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대상 유치원의 경우, 자유간식을 실시하는 관계로 자유놀이 시간에 간식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놀이형태 관찰시 간식활동이 함께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ubin, Watson 및 Jambor(1978)의 사회, 인지적 놀이형태의 분류에 따라 간식활동, 방관, 비참여, 전이활동 등은 기타행동으로 보아 놀이형태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관찰빈도 7434회 중 이들 기타행동을 제외한 총 5204회를 기초로 하여 놀이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형태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뒤,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의 차이

유아의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놀이형태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독립, 장의존 유아 모두 단독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단놀이를 많이 하였으며 병행놀이는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2>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

인지양식 놀이형태	장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1233(23.7)	1116(21.4)	2349(45.1)
병행놀이	454(8.7)	432(8.3)	886(17.0)
집단놀이	1032(19.8)	937(18.0)	1969(37.8)
계	2719(52.2)	2485(47.8)	5204(100.0)

$$\chi^2=43615.00 \quad df=2 \quad p>.05$$

이를 남, 녀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독립, 장의존 남아 모두 단독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단놀이를 많이 하였으며, 병행놀이는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형태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남아가 장의존 남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였으며,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여아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독립 여아 모두 단독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단놀이를 하였으며 병행놀이는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여아가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며,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 남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 빈도 (%)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		
	장 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683(24.4)	489(17.4)	1172(41.8)
병행놀이	222(7.9)	259(9.2)	481(17.2)
집단놀이	675(24.2)	476(17.0)	1151(41.0)
계	1580(56.3)	1224(43.7)	2804(100.0)

$\chi^2 = 24.36$ df = 2 p < .001

〈표 4〉 여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 빈도 (%)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		
	장 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550(22.9)	627(26.1)	1172(49.0)
병행놀이	232(9.7)	173(7.2)	405(16.9)
집단놀이	357(14.9)	461(19.2)	818(34.1)
계	1139(47.5)	1261(52.5)	2400(100.0)

$\chi^2 = 20.72$ df = 2 p < .001

결과적으로 장독립, 장의존 유아 모두 단독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 병행놀이는 가장 적게 하였고,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 장독립 남아는 장의존 남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아의 경우는 장독립 여아가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며,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

유아의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라 어떠한 인지적 놀이형태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독립, 장의존 유아 모두 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능놀이, 극놀이, 게임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게임, 극놀이, 구성놀이, 기능놀이 모두에 대해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5〉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		
	장 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868(16.7)	820(15.8)	1688(32.4)
병행놀이	1022(19.6)	970(18.6)	1992(38.3)
집단놀이	589(11.3)	534(10.3)	1123(21.6)
게임	240(4.6)	161(3.1)	401(7.7)
계	2719(52.2)	2485(47.8)	5204(100.0)

$\chi^2 = 10.55$ df = 3 p < .05

이를 남, 녀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장독립, 장의존 남아 모두 구성놀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기능놀이, 극놀이, 게임의 순으로 놀이빈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여아의 경우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독립, 장의존 여아 모두 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능놀이, 극놀이, 게임의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6> 남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장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489(17.4)	365(13.0)	854(30.5)
병행놀이	550(19.6)	459(16.4)	1009(36.0)
집단놀이	328(11.7)	267(9.5)	595(21.2)
게임	213(7.6)	133(4.7)	346(12.3)
계	1580(56.3)	1224(43.7)	2804(100.0)

$\chi^2=5.89$ df=3 $p>.05$

<표 7> 여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장독립	장의존	계
단독놀이	379(15.8)	455(19.0)	834(34.8)
병행놀이	472(19.7)	511(21.3)	983(41.0)
집단놀이	261(10.9)	267(9.5)	528(22.0)
게임	27(1.1)	28(1.2)	55(2.3)
계	1139(47.5)	1261(52.5)	2400(100.0)

$\chi^2=2.36$ df=3 $p>.05$

결과적으로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게임, 극놀이, 구성놀이, 기능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 장독립, 장의존 남아 모두 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반

면, 게임은 가장 적게 하였고, 장독립, 장의존 집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장독립, 장의존 여아 모두 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 게임은 가장 적게 하였고,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

<표 8>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놀이형태 \ 인지양식	빈도(%)		
	장독립	장의존	계
단독-기능놀이	491(9.4)	418(8.0)	909(17.5)
단독-구성놀이	664(12.8)	606(11.6)	1270(24.4)
단독-극놀이	78(1.5)	92(1.8)	170(3.3)
병행-기능놀이	197(3.8)	168(3.2)	365(7.0)
병행-구성놀이	230(4.4)	235(4.5)	465(8.9)
병행-극놀이	27(0.5)	29(0.6)	56(1.1)
집단-기능놀이	180(3.5)	234(4.5)	414(8.0)
집단-구성놀이	128(2.5)	129(2.5)	257(4.9)
집단-극놀이	484(9.3)	413(7.9)	897(17.2)
게임놀이	240(4.6)	161(3.1)	401(7.7)
계	2719(52.2)	2485(47.8)	5204(100.0)

$\chi^2=29.93$ df=9 $p<.001$

유아의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라 어떠한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독립 유아는 단독-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며, 다음으로 단독-기능, 집단-극, 집단-게임 등의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인 반면, 장의존 유아는 단독-구성, 단독-기능, 집단-극, 병행-구성놀이 등의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집단-게임, 집단-극, 단독-기능, 단독-구성놀이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장의존 유아는 장독립 유아에 비해 집단-기능, 단독-극, 병행-구성, 병행-극놀이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 남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인지양식 놀이형태	빈도(%)		
	장 독립	장 의 존	계
단독-기능놀이	262(9.3)	171(6.1)	433(15.4)
단독-구성놀이	357(13.1)	265(9.5)	632(22.5)
단독-극 놀 이	54(1.9)	53(1.9)	107(3.8)
병행-기능놀이	99(3.5)	87(3.1)	186(6.6)
병행-구성놀이	99(3.5)	146(5.2)	245(8.7)
병행-극 놀 이	24(0.9)	26(0.9)	50(1.8)
집단-기능놀이	128(4.6)	107(3.8)	235(8.4)
집단-구성놀이	84(3.0)	48(1.7)	132(4.7)
집단-극 놀 이	250(8.9)	188(6.7)	438(15.6)
계 임 놀 이	213(7.6)	133(4.7)	346(12.3)
계	1580(56.3)	1224(43.7)	2804(100.0)

$\chi^2 = 39.71$ $df = 9$ $p < .001$

이를 남, 녀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장독립 남아는 단독-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기능, 집단-극, 집단-게임 등의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였다. 장의존 남아 역시 단독-구성놀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집단-극놀이, 단독-기능놀이, 병행-구성놀이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남아는 장의존 남아에 비해

단독-구성, 단독-기능, 집단-게임, 집단-극, 집단-구성, 집단-기능, 병행-극놀이 등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구성놀이에서만 더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단독-극놀이와 병행-극놀이에서는 동일한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10〉 여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 빈도(%)

인지양식 놀이형태	빈도(%)		
	장 독립	장 의 존	계
단독-기능놀이	229(9.5)	247(10.3)	476(19.8)
단독-구성놀이	297(12.4)	341(14.2)	638(26.6)
단독-극 놀 이	24(1.0)	39(3.4)	63(2.6)
병행-기능놀이	98(4.1)	81(3.4)	179(7.5)
병행-구성놀이	131(5.5)	89(3.7)	220(9.2)
병행-극 놀 이	3(0.1)	3(0.1)	6(0.3)
집단-기능놀이	52(2.2)	127(5.3)	179(7.5)
집단-구성놀이	44(1.8)	81(3.4)	125(5.2)
집단-극 놀 이	234(9.8)	225(9.4)	459(19.1)
계 임 놀 이	27(1.1)	28(1.2)	55(2.3)
계	1139(47.5)	1261(52.5)	2400(100.0)

$\chi^2 = 545.53$ $df = 9$ $p < .001$

여아의 경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독립 여아는 단독-구성놀이를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집단-극놀이, 단독-기능놀이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였으며, 장의존 여아 역시 단독-구성놀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단독-기능놀이, 집단-극놀이 순으로 놀이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놀이빈도의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독립 여아는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구성놀이, 병행-기능놀이, 집단-극놀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

해 집단-기능놀이, 단독-구성놀이, 집단-구성놀이, 단독-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단독-기능놀이, 단독-극놀이, 집단-게임놀이에 있어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행-극놀이에서는 동일한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집단-게임, 단독-기능, 단독-구성, 병행-기능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아의 경우, 장독립 남아는 장의존 남아에 비해 단독-구성, 단독-기능, 집단-게임 놀이를 더 많이 하며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구성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장독립 여아가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구성, 병행-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해 집단-기능, 단독-구성, 집단-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장독립성, 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적 놀이, 인지적 놀이, 사회-인지적 놀이형태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첫째, 유아의 장독립성, 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장독립 유아나 장의존 유아 모두 단독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 병행놀이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놀이형태에 있어 인지양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독립 유아들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집단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Coates(1975), Steele(1981) 및 천혜경(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적 놀이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으나 본 연구결과,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aracho(198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그녀의 연구에서도 인지양식과는 상관없이 장독립, 장의존 유아 모두 사회적인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남, 녀 유아별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 녀 유아별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형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1$). 먼저 남아의 경우 장독립 남아는 장의존 남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는 장독립 여아가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해 집단놀이와 단독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 녀 유아별 사회적 놀이형태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장독립 유아일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사회 지향적이며, 장의존 유아일 경우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 지향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장독립성, 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인지적 놀이형태에 있어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게임, 극놀이, 구성놀이, 기능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물을 지각할 때 환경적인 배경과 분리시켜 인지하고, 분석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

는 장독립적인 유아가 비교적 전체적인 장(field) 속에서 환경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장의존적인 유아보다 인지적 수준이 높은 놀이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 녀 유아별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5$). 즉, 남, 녀 유아 모두 인지양식과는 상관 없이 구성놀이를 가장 많이하고, 게임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기관이 구성놀이를 위한 자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구성놀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Rubin, Fein 및 Vandenberg(1983)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인지적 수준이 높은 놀이인 게임은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적인 놀이이기 보다는 구체적 조작기 유아의 전반적인 놀이특징(Smilansky, 1968)이므로 본 연구대상 유아들이 게임놀이를 가장 적게 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장독립성, 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있어 장독립 유아는 장의존 유아에 비해 집단-게임, 단독-기능, 병행-기능놀이를 더 많이 하며, 장의존 유아는 장독립 유아에 비해 집단-기능, 단독-극, 병행-구성, 병행-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물을 보다 분석적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있는 장독립 유아가 인지적 경향이 많은 놀이를 더 많이 하며, 반면에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있는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인지적 경향이 적은 놀이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 녀 유아별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p < .001$). 즉, 남아의 경우, 장독립 남아는 장의존 남아에 비해 단독-구성, 단독-기능, 집단-게임놀이를 더 많이 하며, 장의존 남아는 장독립 남아에 비해 병행-구성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장독립 여아가 장의존 여아에 비해 병행-구성, 병행-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장의존 여아는 장독립 여아에 비해, 집단-기능, 단독-구성, 집단-극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독립, 장의존 남, 녀 집단간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남아의 경우는 장독립 유아가, 여아의 경우는 장의존 유아가 인지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이 더 높은 놀이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지적 놀이 및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놀이형태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은 사회적 놀이형태 보다는 인지적 놀이나 사회-인지적 놀이형태에 더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남, 녀 유아별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놀이와 사회-인지적 놀이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인지적 놀이형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 녀 유아별 인지양식에 따른 놀이형태는 인지적 놀이형태 보다는 사회적 놀이 및 사회-인지적 놀이에 대해 더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1개 병설 유치원의 원

아들로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재 유아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 놀이 형태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인지적 놀이 형태와 이들 두 놀이형태를 조합한 사회-인지적 놀이 형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적 놀이형태 및 사회-인지적 놀이형태를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권영실(1988).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공간 조망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1980). 유아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울:창지사.
- 김미정(1987). 5·6세 유아의 인지양식과 창의성간의 관계(장독립성·의존성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1984). 아동의 공간조망 능력발달 및 인지양식과의 관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용선(1981). 양의 보존개념과 장독립성 및 창의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숙(1975). 유아의 초기 환경과 사회화과정-사회성숙도와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16(2). 서울:한국교육학회.
- 김영주(1983).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보존개념 훈련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복(1981). 가정의 사회화 유형과 아동의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1990). 유아의 장독립성-의존성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조진형(1984). 학령전 아동의 인지양식에 관한 일연구-장의존 장독립성 차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2). 133-142.
- 장혁표(1981). 인지양식과 그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윤식(n.d). 유아용 인지양식 검사 실시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전윤식(1984). 한국판 유아용 잠입도형검사의 표준화 결과와 몇개의 관련 변인과의 관계. *사회조사연구*, 3(1). 104-118.
- 조진형(1983). 부모의 양육 태도와 3-5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형(1984). 취학전 아동의 인지양식에 관한 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2-10.
- 천혜경(1987). 유아의 인지양식과 놀이행동간의 관계 : 장독립성-의존성 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K. E. (1971). Preschool play norms:A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 99-103.
- Bloomer, M. (1967). An inquir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and creativ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67, 127-140.
- Christie, J. F., & Johnsen, E. P. (1983). The role of play in social-intellectual development. *Review of Educational*

- Research*, 53, 93-115.
- Coates, S. M. Lord, M., & Jakaboivics, E. (1975).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social-nonsocial play and sex differe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0, 195-202.
- Irwin, D. M., & Bushnell, M. M. (1980). *Observational Strategies for Child Study*. New York:Holt, Rinehart & Winston.
- Kogan, N. (1976). *Cognitive styles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Hillsdale, New Jersey: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arten, M. B. (1932). Social po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 243-269.
- Piaget, J. (1962). *Play, dream, and im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itts, M. M, & Thompson, B. (1984). Cognitive style as mediating variables in inferential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14(4), 426-435.
- Rogers C. S., & Sawyers J. K. (1988).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ashington, D. C:NAEYC.
- Rubin, K. H., Watson, K. S., & Jambor, T. W. (1978). Free play behavior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534-536.
- Ruble, D. N., & Nakamura, C. Y. (1972). Task orientation versus social orientation in young children and their attention to relevant social cue. *Child Development*, 43, 471-480.
- Saracho, O. N. (1983). Assessing cognitive style in young children.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8, 229-236.
- Saracho, O. N. (1985).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s and cognitive styl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2, 1-18.
- Saracho, O. N. (1987). Cognitive style characteristics as related to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163-179.
- Saracho, O. N., Spodek, B. (1981). Teacher's cognitive styles:Educational implications. *The Educational Forum*, 45(2), 153-159
- Smilansky, S. (1968). *The effect of sociodramatic play o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ew York:Wiley
- Witkin, H. A., & Goodenough, D. R. (1977).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4, 661-689.
- Witkin, H. A., Oltman, P. K., Raskin, E., & Karp, S. A. (1971). *A manual for the embedded figurals tests*. Palo, Alto, California: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